제이콥 리스모그 보수당 하원 원내대표가 브렉시트를 두고 3시간 동안 이어진 심야 토론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있었다. 건너편에서 동료 의원들은 "똑바로 앉으세요!"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리스모그는 멈추지 않았다.

리스모그가 보여준 행동은 몇몇 사람들을 화나게 했다. 배우 휴 로리는 이 행동을 "버릇없고 참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묘사했다.

조기 총선 발의 거부... 보리스 존슨이 또 패배했다

브렉시트 관련 표결에서 보리스 존슨이 졌다

'저는 선거를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브렉시트 위기가 온전히 해결되기를 전 국민이 기다리는 와중에 누군가는 이 모습을 보고 하원이 긴 토론과 여러 정치 의례로 얼마나 침체했는지 알 수 있는 순간이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의회가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리스모그 사건을 보고 생각을 바꿀지도 모른다.

의회를 불신해온 사람들은 현재 정부의 브렉시트 접근 방식이 민주적 절차를 거의 존중하지 않고 "고위 엘리트"에 의해 쉽게 결정되었다고 생각했다.

리스모그의 자세를 두고 전 세계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창의력을 발휘했다.